

금속공예를 만난 고려청자의 진수를 보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박물관 '고려청자: 명작의 세계' 전

‘백자도금은투각새꽃넙쿨무늬완’·‘청자오리모양연적’ 등 110점 전국 개인 소장품 일일이 대여... 내년 2월 12일까지 무료 관람

고려시대 도자와 당시 세계적인 수준이었던 금속 공예가 어우러진, 보기 드문 작품이다. 정교하게 투각된 은판(銀板)이 바닥이 굽은, 일명 햇무리굽 백자를 감싸고 있다.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낸 ‘백자도금은투각새꽃넙쿨무늬완(白瓷鍍金透刻鳥花紋碗)’은 화려하기 그지 없다. 풍만한 가사를 걸치고 왼손에 요령을 들고 앉아 있는 ‘청자나한상(靑磁羅漢象)’은 해학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고 화사한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청자장미꽃장식벼루’도 인상적이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박물관·박물관(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529번길 37)에서 열고 있는 ‘고려청자: 명작의 세계’ (2023년 2월12일) 전시작 110여 점은 고도의 제작기술과 뛰어난 조형성으로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푸른 빛의 자기, 고려청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획전이다.

특히 전시작들은 김대환 동곡박물관장 관장이 인연이 있는 전국의 개인소장자들에게 일일이 대여해 온 작품들이라,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재)보문복지재단(이사장 정영현)은 지난 2020년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광산구에 미술관·박물관을 개관 후 다양한 전시를 진행해왔다.

미술관에서는 석현 박은용 전, 미디어 아트전시 등이 열렸고 내년에는 이탈리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가 열

릴 예정이다.

동곡박물관은 상설전과 함께 매년 대규모 기획전과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을 주제로 대규모 기획전을 개최했고, 올해 고려청자에 이어 내년에는 백자전을 준비중이다.

전시에는 의미있는 작품들이 여럿 나왔다. 실물 공개를 처음하는 ‘백자도금은투각새꽃넙쿨무늬완’은 천 년 전 고려시대의 왕실관요 사기장과 장야서의 금속공예장이 합작한 작품으로 이 시기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화려한 작품이다.

‘청자오리모양연적(靑瓷鵝形硯滴)’은 현존하는 고려청자 오리 연적 중 유일하게 뚜껑으로 놓인 연꽃봉오리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작품이다. 몸통의 깃털까지 섬세하게 조각된 연적은 아름다운 비색(翡色)과 광택이 유려하고 조형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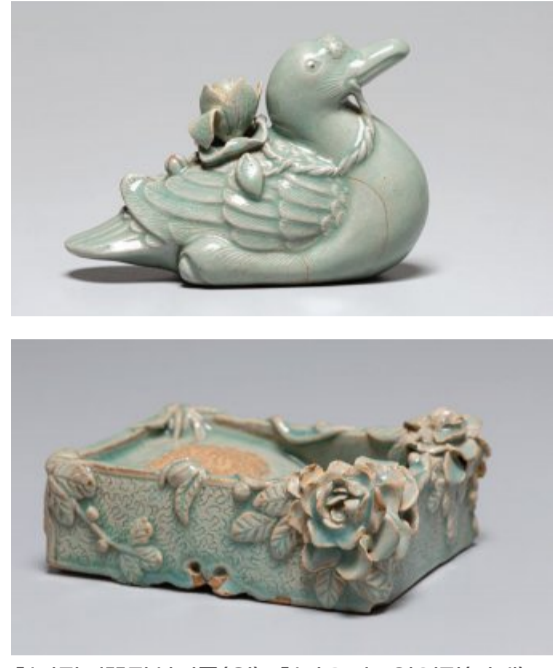
또 기린이 옹크리고 앉아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담은 ‘청자기린모양연적’, ‘청자상감용무늬완’ 등 고려청자의 진수를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됐다.

그밖에 함(盒), 주전자, 향아리, 향로, 접시 등 다양한 청자 작품의 조형성과 함께 물고기, 모란, 포도 등 각종 문양의 독특한 아름다움도 만난다.

고려청자 학술대회도 열렸다. 전시 개막 다음날인 지난 11월 5일 열린 행사에서는 윤용이 명지대



백자도금은투각새꽃넙쿨무늬완



청자장미꽃장식벼루(위), 청자오리모양연적(아래).

석좌교수의 ‘고려 상감청자의 성립과 발전’을 주제로 한 기초발표와 함께 토론등이 이어졌다. 고려시대 명품 도자기의 90% 이상이 호남(강진·부안)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의 지역의 연관성을 탐구해보는 기획이었다.

한편 박물관에서는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전 시대를 망라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상설전이 열리고 있다. 또 아트홀에서는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2002년 월드컵 사진과 선수들의 유니폼 등을 전시 중이며 당시 주요 경기장면도 상영하고 있다.

월요일 휴무.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 관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동곡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고려청자: 명작의 세계’. <사진 제공=동곡박물관>

어수선하고 불안했던 코로나 속 ‘따뜻한 그늘’

광주 출신 김지연 작가 사진산문집 펴내



‘이것도 중요한 일’

광주 출신 김지연 사진작가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애정을 갖고 있다. ‘정미소’, ‘남은방’, ‘남광주역’, ‘근대화 상회’ 등의 연작은 그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준다.

광주 출신으로 전주 서학동사진미술관 관장이자 사진가인 김지연 작가가 자신의 사진과 선후배 사진가들의 사진에 글을 붙인 사진산문집 ‘따뜻한 그늘’(눈빛출판사)을 펴냈다.

한 장의 사진이 한 편의 글과 같은 비중을 갖게 배치한 사진가의 따뜻한 시선과 이야기가 있는 책이다. 김 작가는 코로나19로 어수선했던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음을 움직인 한 장의 사진을 그리고 글을 써 신문에 연재했다. 그의 모든 사진이 그렇듯 ‘일상적인 사진에 소소한 이야기들이 짝을 이룬 글’들은 짧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1부는 저자가 직접 찍거나 그동안 작업해온 포트폴리오에서 골라낸 78점의 사진으로 구성했다.

‘내 짧은 친구의 결혼식’ 사진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짧은 친구의 모습과 그녀의 여리고, 반짝이고, 섬세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글이 어우러져 인상적이다.

작가는 또 서해바다로 유유히 흘러 들어가는 영상장과 그 어디마는 어귀에 핀 석류꽃에도 마음을 주고 묘지 한 칸에 핀 수국, 옛 고향집, 가까이 가기에 두려웠던 상앗집에 대한 추억도 들려준다.

또 프로젝트 ‘자영업자’, ‘삼천 원의 식사’ 등을 통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풀어냈다.

2부는 선후배, 동료 사진가들의 사진으로 구성했다. 한영수, 김근원 등 작고 작가에서부터 엄상빈, 박종우, 이한구, 변순철, 임안나, 윤정미, 고정남, 김영경 등의 중견작가와 김은혜, 주용성, 이세현 등 사진가들의 사진 40점으로 구성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세현 작가의 ‘어떤 지평’ 연작을 통해서도 근현대사의 중심에서 서 있는 장소들을 찾아 돌을 던지는 행위를 영글에 담은 그가 전하는 ‘사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 작가는 ‘정미소’와 ‘자영업자’를 비롯해 12권의 사진집을 출간했으며 ‘감자꽃’(열화당), ‘전라선’(열화당) 등 두 권의 사진산문집을 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트라우마센터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5~9일 축하공연·영화 ‘김복동’ 상영 등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제74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5일을 시작으로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부터 영화상영까지 다채롭게 마련됐다.

첫날에는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강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오월소나무협창단이 사계절 푸르른 소나무처럼 5월 광주정신이 푸르게 살아 숨쉬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 ‘솔아솔아푸르른솔아’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한다.

9일 오후에는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및 충장로 일대에서 ‘찾아가는 인권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전일빌딩 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삶을 다룬 영화 ‘김복동’ <사진>을 상영한다. 이후 송원근 감독과

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지난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했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영화는 현장 및 전화(062-601-1976)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우리 가락으로 한 해 마무리해요

광주시립창극단 송년 국악한마당 판소리·민요·타악협주곡 등 다채 10일 오후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창극단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창극단이 보유한 다채로운 공연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창극단의 수시공연 ‘송년 국악한마당’이 10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판소리와 남도민요, 한국 무용,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 공연을 비롯해 타악협주곡, 판소리에 창작 무용을 결합한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창극단은 창극단 기악부와 타악부의 타악협주곡 ‘매사냥’으로 공연의 막을 올린다. 해당 곡은 하늘을 활개치는 매와 사냥꾼들의 긴장감을 사물악기의 다채로운 장단 변화와 기악기의 역동적 연주로 표현했다.

이어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소리꾼의 소리와 기악 반주에 맞춰 창작 무용을 선보인다.

또 ‘육자배기와 흥타령’, ‘지경다짐과 액막이 타령’ 등의 남도민요를 무대에 올리고 ‘입춤소고’, ‘속대머리’, ‘난감하네’, ‘아름다운 나라’, ‘판국과 연희 놀이’ 등 소고 춤과 국악가요 등을 펼친다.

또 김규형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소리북 장단과 함께 전북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에

능 보유자인 김소영 명창의 판소리 수궁가 중 ‘토끼 배 가르는 대목’도 만나볼 수 있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가로 전석 1만 원이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526-0363.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ACC 문화정보원에 문화상품점 재개장

작가 협업 작품 등 100여 종... 내년 4월 공식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에 문화상품점이 재개장됐다.

문화상품점에는 ACC 콘텐츠 연계 상품을 비롯해 ACC 재단의 기관 상징을 활용한 상품 20종, 어린이 그림책 및 전문서적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신규 매거진 ‘verb’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상품 100여 종이 갖춰져 있다.

ACC재단은 문화정보원에 문화상품점을 재개장하고 내년 4월 2일까지 사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눈에 띄는 상품은 ‘디자인 캔들’ <사진>과 ‘인센스 홀더’. 두 상품은 2022 ACC 미디어파사드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전시에 참여한 임아롱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임 작가의 ‘MOVE AND MOVE’ (2022) 작품에 쓰인 이미지와 도형을 새로운 이미지와 기능으로 개발했다.



한편 ACC재단은 내년 4월 문화상품점 공식 운영을 위해 문화상품 브랜드와 BI(Brand Identity) 개발을 병행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